

여성 SF의 시공간과 포스트휴먼적 전망

—윤이형, 김초엽, 김보영을 중심으로

연 남 경*

요약

2010년대 한국 여성 작가의 SF는 주목에 값한다. SF 장르는 남성적이라는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한국문학장에서 왜소한 입지를 가졌던 SF를 새롭게 써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해석의 틀로써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과학기술 발전의 시대에 달라진 인류의 형상을 통해 인간에 대한 재사유를 도모하고 긍정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최근 한국 여성 SF가 모색하는 희망적 미래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적절하다. 본고는 김초엽, 김보영, 윤이형의 SF에 나타나는 시공간의 사고실험에 주목하며 포스트휴먼적 전망을 찾아보았다.

윤이형은 휴먼과 포스트휴먼의 시대를 선후로 배열하지 않고 두 체제가 공존하는 시간관을 보여줌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해줄 거라는 맹목적인 믿음에 의문을 제기한 채 반복되는 비동시적 모순을 주시한다. 그러나 소설은 디스토피아를 제시하거나 기술 문명의 폐해를 단순히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과학의 기술과 인간의 희망이라는 이질성이 공존하는 혼종적 공동체를 통해 비동시성의 모순이 변증법적으로 지양될 가능성을 제안한다.

김초엽의 소설에서 인물들은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유색인 여성 혹은 노인이라는 교차적 정체성을 갖는다. 그들은 근대적 휴머니즘의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해 그것이 각인된 몸의 한계를 기술적으로 넘어서고, 시공간을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위치성에 기반한 체현적 지식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집합 주체를 설정한다. 이는 세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시도하고 윤리적인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

김보영의 소설은 '광속주행 플롯'을 통해 지구에 묶인 시간을 벗어나 우주에서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광속도로 이동한다. 광속주행 끝에 알게 된 인간의 기원 혹은 우주의 원리는 전지 전능한 아버지-유일신이 아닌 여성적 공동체로 이는 개별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공동존재에 해당한다. 광속에 가까운 주행이 가능하고, 그렇기에 우주의 종말에 도달하고, 마침내 ‘클러스터(공동존재)’를 만나고, 4차원의 신적 경험이 가능하다는 소설의 설정은 과학과 문학이 결합하여 이루어낸 새로운 사유의 도전이다. 이렇게 ‘텍스트적 사이보그’에 해당하는 김보영의 소설은 포스트휴먼과 문학적 신체가 모두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주제어: 여성 SF, 포스트휴머니즘, 윤이형, 김초엽, 김보영, 비동시성, 집합적 주체, 광속주행 플롯

목차

1. 들어가며
2. 비동시성의 병렬 구조와 혼종적 공동체
3. 여성 과학자의 유령적 귀환과 집합적 주체
4. 시간여행자의 광속주행 플롯과 공동존재의 발견
5. 맺는말

1. 들어가며

“별이 총총한 하늘이 갈 수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들의 지도인 시대, 별빛이 그 길들을 흰히 밝혀주는 시대는 복되도다.”¹⁾로 시작되는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은 근대소설을 별들의 지도가 더 이상 길을 밝혀주지 않는 상실의 시대의 서사시로 본다. 그의 입장에서는 소설이야말로 근대적 소외의 표현이자 반영이었기에, 그가 갈구한 ‘새로운 세계’는 근대소설과는 다른 서사 형식이 담보될 때 찾아질 수 있는 것이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구절은 재해석의 여지를 갖는다. 하나는 하늘의 별이다. 고대 서

1) 게오르크 루카치, 『소설의 이론』, 김경식 옮김, 문예출판사, 2007, 27면.

사시의 시절에 별이 신화적 세계의 균형으로 인간을 안내해주는 지도의 역할을 했다면, 미래 서사에서 별은 우주여행의 길벗이나 도착지로 기능한다. 이번에는 시공간을 달리함으로써 다시 별빛이 길을 밝혀줄 가능성이 시대가 도래할 예정이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낙관적 믿음, 혹은 희망이다. 루카치는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세계를 찾고자 하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²⁾ 이렇게 총체성이 회복된 세계에 대한 희망은 긴 시간이 흐른 지금, 2010년대 한국 여성 작가의 SF에서 가능태로서 모색되고 있다.

이때 SF가 과학 기술이 발전한 미래 세계를 보여준다는 이유에서 단순히 과학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세계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많은 SF 서사는 지나친 기술 발전이 초래하는 역유포피아, 즉 디스토피아를 더 많이 제시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잠시 최근 도래한 기술 발전의 현실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포스트휴먼 담론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오늘날 과학 기술의 발전 방향이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 포스트휴먼은 그 능력이 현재의 인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는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³⁾ 여전히 논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포스트휴먼 담론이 낙관적 포스트휴머니즘(트랜스휴머니즘), 부정적 포스트휴머니즘,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세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할 때,⁴⁾ 이 글은 그중 비판적

2) 물론 근대소설에 대한 루카치의 입장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문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맞닿아 있었으며, 종말론적 구원의 열망을 유럽 바깥인 러시아에서 희미하게 비쳐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이는 루카치의 마르크스주의에의 경사와 도스도예프스키에의 친착으로 설명된다.(김경식, 『윤진이 후기』, 위의 책, 246-277면 참고.)

3) 신상규, 『호모사피엔스의 미래: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 아카넷, 2014, 68, 104면 참고.

4) 포스트휴먼 담론은 묵시록적 암울한 미래를 향한 '부정적 포스트휴머니즘과 기술결정론적 관점에서의 '낙관적 포스트휴머니즘, 기존 휴머니즘의 한계를 비판하려는 의도에 충실한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으로 나뉜다.(임석원,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기획』, 이화인문과학원 편,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이화여대출판부, 2013, 67-73면 참조.)

포스트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접근한다. 일단은 지나친 낙관론인 트랜스휴머니즘과 구분되어야 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은 계몽주의 휴머니즘과 그것의 본래적인 이원론을 대체하는 인간의 구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트랜스휴머니즘은 휴머니즘의 이원론을 전용하여 슈퍼휴먼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휴머니즘의 특성들을 확대시키려고 한다.⁵⁾ 포스트휴머니즘은 기술의 발달을 도구화함으로써 근대적 이분법을 강화하는 트랜스휴머니즘과 결별하고, 새로운 몸을 상상함으로써 일체의 성적, 인종적, 계급적 차별과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처럼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휴머니즘적 유산을 청산하는 한편, 포스트휴먼화의 긍정적인 잠재성을 설명하고자 한다.⁶⁾ 요컨대 이 글에서 해석의 시각으로서 도입하는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과학기술 발전의 시대에 달라진 인류의 형상을 통해 인간에 대한 재사유를 도모하고 긍정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이론이다.

본고에서는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스트 중 도나 해러웨이와 캐서린 헤일스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자 한다. 캐서린 헤일스는 인간이 지능형 기계와 제휴한다는 전망이 권리를 강탈당한다는 뜻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인지 환경이 발달한다는 뜻이며, 이런 관점에서 인간을 개념화하면 인간의 생존은 위협받는 게 아니라 향상된다고 본다.⁷⁾ 포스트휴먼을 둘러싼 여러 반응이 포스트휴먼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해되는가와 전적으로 관련이 있는 만큼, 기술과 담론의 결합이 새로운 주체화에 대한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때 문학과 과학의 제휴를 통해 “우리 인간의 장기적인 생존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포스트휴먼을 만들어낼 수 있다.”⁸⁾는 책의 마지막 문장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활용할

5) 토마스 필백, 『포스트휴먼 자아: 혼합체로의 도전』, 이화인문과학원 편,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이화여대출판부, 2013, 27면.

6) 임석원, 앞의 글, 73면.

7) 캐서린 헤일스,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허진 옮김, 열린책들, 2013, 507면.

8) 위의 글, 510면.

수 있는 기술 발전의 길을 문학이 제시해줄 수 있다는 희망적 전망으로 이해된다. 도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는 "인공두뇌의 유기체로, 기계와 유기체의 잡종이며, 허구의 피조물일 뿐 아니라 사회적 실제의 피조물"⁹⁾ 인데, 이때 사이보그란 개체인 동시에 은유이며, 살아 있는 존재인 동시에 내러티브 구성에 해당한다.¹⁰⁾ 또한 사이보그는 인간/동물, 인간/기계의 구분에 도전하며 특히 남/녀의 이분법적 사고의 논의를 혼란시킨다는 점에서 포스트젠더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이보그 기술 덕분에 여성들은 생물학적 신체의 경계를 실제로 넘어설 수 있게 되고, 스스로를 역사적 범주인 여성 밖에 있는 다른 대상으로 재정의할 수 있게 되었다. 사이보그는 경계 위반의 '기이한 낯섦(uncanny)'을 일깨우는 괴물 형상의 계보에서 가장 최근의 형상이다. 근대 과학기술의 시야에서 벗어나 불손하고 오염된, 비가시성의 그늘에 놓여 있던 쿼어 괴물로서, "비-오이디푸스적 서사 속에서 구현"¹¹⁾되는 사이보그는 어떤 가부장적 기원도 갖고 있지 않다. 한편 시력이 언제나 보는 권력의 문제였다 할 때, '백인-부르주아-남성-신사-과학자'의 눈을 투명하고 초월적인 시선으로 여겨온 근대 과학 서사를 폭로하고 대체하기 위해 해러웨이는 '체현적 지식'을 제시한다. 오직 부분적인 시각만이 객관적 시력을 약속한다는 것이다.¹²⁾ 무엇이 세계에 대한 합리적 설명으로 간주될 것인가에 대한 투쟁은 보는 방법에 대한 투쟁이므로 페미니즘 체현은 장소, 자리매김, 상황만들기의 정

9) 도나 해러웨이,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민경숙 옮김, 동문선, 2002, 267면.

10) 사이보그는 실제로 존재함으로써 기술적 현실의 힘뿐만 아니라, 상상의 힘까지 갖는다. 현재 미국 인구의 10퍼센트는 기술적 의미에서 사이보그에 추정되는데, 전자 심박 조절기, 인공 관절, 체내 이식형 약물 전달 장치, 이식형 각막 렌즈, 인공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은유적인 의미에서 사이보그가 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 많다. 스크린을 통해 사이버네틱스 회로에 접속해 컴퓨터키보드를 이용하는 사람, 광섬유 현미경의 도움을 받아 수술하는 신경외과 의사,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청소년 등이 이에 해당한다.(케서린 헤일스, 위의 글, 211-212면 참조.)

11) 도나 해러웨이, 앞의 글, 269면.

12) 위의 글, 341-345면.

치와 인식론과 관련되며, 이런 차원에서 부분적 시력과 제한된 목소리로 이루어진 집합적 주체 위치가 발견되는 과학, 그리고 과학소설에서 해러웨이는 세계를 재상상하는(revisioning) 희망을 발견한다.¹³⁾

SF에 관한 기존 논의들은 장르 중심의 사적 고찰, 남북한 비교 및 문화사적 연구로 이어져 내려온¹⁴⁾ 한편, 포스트휴머니즘 담론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들이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다.¹⁵⁾ 비판적 포스트휴먼 담론이 내장한 포스트젠더와 페미니스트 시각은 최근 ‘페미니스트-독자 시대’를 맞이한 한국문학장의 변동과 관련하여 SF를 활발히 읽어내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¹⁶⁾ 여성문학적 주체가 중심을 이루는 테크노페미니즘으로 이어지고 있다.¹⁷⁾ 이때 창작의 주체가 여성이기에 여성의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성찰이 이루어지고,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궁무진한 사고실험을 통해 미래에의 희망이 적극적으로 모색된다는 점이 최근 여성 SF의 특징이라는 점에서 SF를 새롭게 써나가고 있는 여성 작가들에게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SF 장르를 남성적이라는 선입견을 불식시키는 데

13) 위의 글, 348-360면 참고.

14) 고장원, 『우리나라 과학소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박상준 외 『한국 창작 SF의 거의 모든 것』, 케이포이북스, 2016.; 이지용, 『한국 SF 장르의 형성』,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복도훈, 『SF는 공상하지 않는다』, 은행나무, 2019.; 김민선, 『1950-60년대 남북한 SF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20.

15) 노대원, 『한국 문학의 포스트휴먼적 상상력』, 국제비교한국학회, 『비교한국학』, 23-2, 2015.; 노대원, 『포스트휴머니즘 비평과 SF』, 한국비평문학회, 『비평문학』, 68, 2018.; 강동호, 『포스트-휴먼-노블』, 『문학과사회』, 2018 겨울호.; 백지은, 『신을 창조한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크릿터』, 창간호, 2019.

16) 백지연, 『포스트휴먼 시대의 젠더정치와 괴물-비체의 재현방식-김언희와 한강의 작품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50, 2018.; 정은경, 『포스트휴먼 시대의 여성의 노동』, 『크릿터』, 창간호, 2019.; 차미령, 『고양이, 사이보그, 그리고 눈물-2010년대 여성 소설과 포스트휴먼 '몸'의 징후들』, 『문학동네』, 26-3, 2019.; 인아영, 『젠더로 SF하기』, 『자음과모음』, 42, 2019.; 김윤정, 『LGBT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바디의 상상력과 수행성』, 『이화어문논집』, 48, 2019.; 서승희, 『포스트휴먼 시대의 여성, 과학, 서사』, 현대문학이론학회, 『현대문학이론연구』, 77, 2019.

17) 김미현,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여성과 테크노페미니즘』,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49, 2020.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성과 과학기술의 상관관계와 문화적 재현에 대한 적극적 질문으로 연결되지 못했으며,¹⁸⁾ 장르적 특성상 SF가 페미니즘과 젠더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다채로운 상상력을 담당해 왔다는 사실이 더 주목되고 논의되어야 한다¹⁹⁾는 시각에 동의하며 본고에서도 그 문제의식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기왕의 논의들이 포스트휴먼 이론을 통해 포스트젠더의 형상에 주목하고 새로운 신체성과 주체성을 발견하는 데 집중되었다면, 본고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성과를 수용하는 한편 포스트휴먼 신체성에서 나아가 신체가 외부와 만나는 방식에 보다 관심을 두려 한다. SF의 시공간 활용은 합리적인 외삽이자, 단순히 현실 세계의 비교나 유추가 아니라 직접적인 세계의 변형 혹은 사고실험에 가깝기에,²⁰⁾ 기술 발전을 통해 가능할 새로운 시공간에 대한 분석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본고에서는 김보영, 김초엽, 윤이형의 SF에 나타나 는 시공간에 주목하며 포스트휴먼적 전망을 찾아보려 한다. 2005년 중앙일보 신인문학상을 통해 등단한 윤이형은 날 선 현실비판의식과 SF적 상상력을 결합하여 페미니스트 SF의 대표적 작품세계를 형성해 왔다.²¹⁾ 2004년 과학기술창작문예에 당선되며 활동을 시작한 김보영은 SF 문단에

18) 사이언스픽션은 종종 남성적 장르로 여겨지곤 한다. 이는 과학과 기술을 남성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관행은 물론, 과학서사와 무협지는 남성적 영역으로 로맨스나 멜로드라마는 여성적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교양독서와 관련한 이분법적 사고와도 관련된다.(서승희, 위의 글, 133면.)

19) SF는 오히려 현실적인 기준과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 전복적이고 진보적인 상상을 가능케 하는 장르로서, 페미니즘과 젠더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다채로운 상상력을 담당해왔다는 사실이 더 주목되고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인아영, 위의 글, 47면.)

20) 박인성, 『한국 SF 문학의 시공간 및 초공간 활용 양상 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77, 2020, 250면.

21) 윤이형은 2005년 『검은 불가사리』로 중앙일보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했으며, 소설집 『셋을 위한 왈츠』(2007), 『큰 늑대 파랑』(2011), 『러브 레플리카』(2016), 『작은 마음 동호회』(2019), 경장편 『개인적 기억』(2015), 『붕대감기』(2020), 장편 『줄업』(2016) 등이 있다. 이중 본고의 연구 대상인 『굿바이』와 『대니』가 수록된 『러브 레플리카』는 본격적인 SF 작품집에 해당한다.

서 여성 작가의 선두주자에 해당하며, 독창적인 사고실험과 하드 SF 창작이 특징이다.²²⁾ 2017년 한국과학문학상을 수상하며 활동을 시작한 젊은 작가 김초엽은 여성, SF, 페미니즘의 시각을 견지하는 작품을 통해 주목받고 있다.²³⁾ 이 세 작가는 본격문학과 장르문학의 경계를 넘고 세대 간 격차를 넘어 페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이 만난 포스트젠더적 사유, SF적 시공간을 통한 사고실험, 희망적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²⁴⁾ 이에 작가마다 달리 드러나는 시공간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공간 실험이 어떤 바람직한 미래를 열어젖히며 포스트휴먼적 전망으로 연결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비동시성의 병렬 구조와 혼종적 공동체

헤일스의 경우, 포스트휴먼이라는 명명 과정에서 휴먼/포스트휴먼 시대를 엄격히 구분할 수 없다고 본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다양한 지형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 두 체계가 서로 공존했기 때문이다.²⁵⁾ 그의 저서 제목이 흔히 생각할 만한 미래형 동사가 아니라 과거형으로 쓰인 바는 이런 사유의 반영 때문이다.²⁶⁾ 진보와 발전을 향해가는 근대의 선형적 시간

22) 김보영은 2004년 「촉각의 경험」으로 과학기술창작문에 중편 부문에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멀리 가는 이야기』(2010), 『진화신화』(2010), 장편 『7인의 집행관』(2013), 『저 이승의 선지자』(2017), 중편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2015) 등이 있다.

23) 김초엽은 『관내분실』과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으로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대상과 가작을 수상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2017년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2019), 경장편 『원통 안의 소녀』(2019)가 있으며, 「인지공간」(『오늘의 SF #1』 수록, 2019) 등 활발히 창작 중이다.

24) 두나, 정소연, 구병모, 정보라, 박해울, 정세랑 외에도 최근 등장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는 많은 여성 SF 작가들이 있으나, 지면상 다음 논의의 장으로 미루기로 한다.

25) 이수진, 「포스트휴머니즘적 상상력과 문학적 재현」, 이화인문과학원 편, 앞의 책, 273면.

26) 캐서린 헤일스, 앞의 글, 29-30면 참고.

관과 결별하는 이런 사유에 의하면 역사는 진보나 퇴보가 아니라, 득과 실의 반복이 된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이들과 동일한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바로 블로흐가 말하는 ‘비동시성(nonsynchronism)’이다.²⁷⁾

윤이형의 『굿바이』는 인류의 화성 정착이 성공하는 미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이 소설은 자본주의의 폐해가 극에 달한 미래의 시점에 화성을 지구의 대안적 공간으로 삼고 평등에 기반한 새로운 인류의 공동체를 수립하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또한 화성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과학자 ‘그녀’와 생계 유지에 급급한 만삭의 임산부 ‘당신’의 삶이 대비되며, ‘당신’의 몸에서 자라나는 태아가 이 모두를 관찰하고 서술하는 화자로 설정되어 있다.

이 소설에서 윤이형은 “변화는 어떤 사람들의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²⁸⁾고 말한다. 중학교 동창이었던 ‘그녀’가 만인의 숭배를 받으며 화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학자로 키워질 때, ‘당신’은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부모의 병간호를 하느라 직장 다니며 모아놓은 돈을 다 써야 했고, 남편이 숨겨둔 빚을 떠안아야 했다. 현재 만삭의 몸으로도 돈을 벌기 위해 알아낸 일자리가 화성 인류의 리턴 기술을 담당하는 회사였고, 우연히 그녀와 당신은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당신은 만원 A레일에서 출퇴근을 하고 김밥으로 허기를 달랜다. 순간 이동이 가능한 신체 전송용 팩스머신도 화성 인류도 당신과는 무관하다. 당신은 백 년 전의 사람들이 살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새로운 세계’란 동화에 나오는 호박마차가 떠오를 만큼 요원하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혜택은 특정 계층만이 누리는 어떤 것이다. 이제 불평등은 기술발전의 수혜를 받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에서 작동한다. 다르게 말하면 세계의 불공평함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다른 것으

27) 문강형준, 『미래의 주체들』, 『문학동네』, 19-2, 2012, 121면.

28) 윤이형, 『굿바이』, 『러브 레플리카』, 문학동네, 2016, 55면.

로 대체될 뿐 반복되고 있음을 이 소설은 보여준다.

이와 같이 중학교 동창이었던 ‘그녀’와 ‘당신’은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산다. 마치 다른 세계,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듯한 두 사람의 극명한 대조는 선형적이며 발전적인 시간관에 대한 이의 제기다. 미래를 향해 달려간다고 믿었던 근대적 시간관은 의문에 부쳐지고 『굿바이』에서는 더 이상 한 줄의 발전적 시간이 미래의 진보를 담보하지 않는다. 두 줄의 시간이 병렬되어 있는 구조는 과거와 미래의 시간이 현재에 공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백 년 전이나 다름없는 삶을 사는 ‘당신’과 미래를 앞당기는 ‘그녀’의 시간은 휴먼과 포스트휴먼 두 체제가 공존하는 시간관을 통해 비동시적 모순을 가시화한다.

『대니』의 시간적 배경은 육아용 안드로이드가 공급되어 있을 만큼의 미래다. 그러나 공간적 배경은 ‘올드타운’으로 미래의 시간 중에 과거의 시간이 고스란히 보존된 특징을 갖는 곳으로 비동시성을 가시화한다. ‘올드타운’은 오래된 삶을 보존할 목적으로 시에서 지정해놓은 곳으로, 타임 캡슐에서 빠져나온 듯한 노인들이 살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동네다. 동네의 모든 것이 낡았으며, 케케묵은 건물들과 썩 방세에 감사하는 가난한 노인인 ‘나’의 정체성과 일치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그곳은 과거의 존재인 ‘나’와 미래적 주체인 로봇 ‘대니’가 마주치는 장소이기도 하다.

육아용 안드로이드 ‘대니’는 킨더가튼 참사²⁹⁾ 이후에 개발되었다. 킨더가튼 참사는 돌봄 노동이 처해 있는 열악한 상황과 피로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원인으로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육아에 투입되는 돌봄 노동을 둘러싼 근원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채, 대체 노동력으로 투입되는 인력이 가난한 여성과 로봇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자인 ‘나’는 출산 후 바로 돈을 벌어야 하는 딸을 위해 손주를 도맡고, 대니는 맛별이 가정의

29) 대니가 탄생하게 되고 ‘나’가 손주를 도맡게 된 배후에는 킨더가튼 참사 사건이 있었다. 같은 친목 모임에 속해 있던 킨더가튼 보육교사가 각자 다니던 직장에 불을 질렀고, 0세에서 4세 사이의 아이들 마흔 두 명과 교사 여덟 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다.

자녀를 돌보기 위해 투입된다. 대니는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 친구를 만난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쉬지 않았어요. 저처럼요. 아기를 돌보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대니는 육아를 위한 알고리즘 대로 살아간다. 감정과 체력이 소모되지 않기에 힘들지 않은 채 감정노동을 하는 인공 존재인 것이다. 동시에 예순아홉의 나이에 손주를 떠맡은 ‘나’는 “나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말을 되뇌며 대니와 동일한 강도의 노동에 견디는 매일을 산다. 이처럼 『대니』의 시공간은 육아용 로봇을 선택할 수 있는 발전된 기술의 수혜자와 올드타운에 거주하는 노모에게 아이를 의탁할 수밖에 없는 사람 간의 계층적 불평등이 작동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다른 한편 대니는 여성에게만, 그것도 하층 계급 여성의 영역이었던 돌봄 노동에 특화된 로봇이다. 이는 로봇이라는 용어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의 은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환기시키며³⁰⁾, 인간과 로봇 사이의 불평등이 로봇의 젠더화와 로봇의 계급화로서 작동할 미래에 비판적 입장을 갖는다.³¹⁾

블로흐는 비동시성의 모순이 사람들을 시대로부터 소외시킨다고 본다. 그가 지칭하는 ‘낯선 자(alien)’는 현재에도 여전히 과거를 사는 방식으로 지금 연결되지 못한 비동시적 존재에 해당한다.³²⁾ 안드로이드 대니는 인간을 닮은 로봇이라는 점에서 ‘낯선(uncanny) 자’이자, 과거에서부터 지속된 문제를 떠맡기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낯선 자(alien)’이다. 로봇 대니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가능해진 미래적 주체임과 동시에 강도

30) ‘로봇’이라는 단어는 원래 ‘노동’을 의미하는 체코어 ‘robota’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간을 대신해 노동하는 존재’라는 개념이었다. 극작가 카렐 차페크의 『로봇의 유니버설 로봇들(R.U.R.)』(1920)에서 인조 생물체로 최초로 사용되었다. (크로노스케이프, 『SF 사전』, 김훈 옮김, 비즈앤비즈, 2012, 36면)

31) 이런 시각을 견지하여 로봇의 계급적, 젠더적 불평등을 전면화한 윤이형의 최근작으로 『수아』(『작은 마음 동호회』, 2019)가 있다.

32) Ernst Bloch, “Nonsynchronism and the Obligation to Its Dialectics”, translated in English by Mark Litter, *New German Critique*, No.11(spring), New German Critique, 1977, p.31.

높은 돌봄 노동에 시달리는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과거의 모순을 체현한 비동시적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대니의 존재는 인간중심주의가 지속될 경우의 미래를 보여준다. 즉 윤이형은 기계가 대체해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지속될 문제에 대한 각성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비동시적 모순은 해소되지 않은 과거이자 새로운 미래의 도래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그렇기에 블로흐는 완벽할 수는 없더라도 해결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는 “과거로부터 여전히 가능한 미래를 오직 현재에 함께 넣어 제후시킬 때 비동시성의 모순은 해결될 수 있을 것”³³⁾이라 말한다. 그를 위해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며 비동시성의 모순이 가시화된 현재의 시간이 갖는 가능성과 변증법적 지양의 방식이 요청된다. 그동안 블로흐의 비동시성 개념이 현재의 모순을 강조하기 위해서만 활용되었다면, 본고에서는 도래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제한한 변증법적 지양의 방식에 보다 주목하고자 한다.³⁴⁾ 이러한 블로흐의 방식은 윤이형의 SF 시공간에서 실험된다.

『굿바이』에서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젊은 과학자로 화성 프로젝트에 참가하며 기계 몸으로 갈아탄다. 반구형 헬멧과 몸통에 빙 둘러붙은 네 개의 금속 팔, 도롱뇽처럼 흡착판이 달린 네 개의 손가락을 가진 ‘스파이디’는 화성 정착의 조건을 충족하는 몸이다. 스파이디는 가히 혁명적 몸이라 할 만했다. 피부로 태양광선을 받아들이고 육체노동을 통해 그것을 소화시키는 스파이디의 몸은 어떤 생명도 착취하지 않고, 돈을 쓰지 않고도 살 수 있고, 연결된 뇌를 통해 전자신호로 의사소통함으로써 불완전한 언어를 벗어난다. 빈부 격차와 성별 구분과 언어의 장벽이 없는 진화한 인류이자 결정적으로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모든 폐해를 극복한 스파이디

33) 위의 글, p.33.

34) 블로흐의 비동시성 개념과 SF 장르, 포스트휴머니즘 담론을 엮어낸 문강형준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단, 미래의 주체인 포스트휴먼을 파국의 대표 형상으로, SF를 부정적 포스트휴머니즘으로 가파르게 연결시킨 시각과 본고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문강형준, 앞의 글 참고.)

는 해러웨이의 사이보그처럼 과거의 어떤 부정적 전통과도 절연된 몸이다. “우리가 인류의 미래 모습이라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동의했습니다”³⁵⁾ 라는 그녀의 말대로 그야말로 포스트휴먼의 현현인 듯하다. 그러나 1/5 가량의 스파이더들이 자살함으로써 화성 실험은 실패로 귀결되고, 스파이더들은 원래 인간의 몸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리턴 기술을 위한 빛을 지면서까지 그들이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스파이더들의 자살 원인은 인간의 몸이었을 때 느꼈던 감각적 경험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가 경멸하는 “대장과 식도와 위와 쓸개의 삶”³⁶⁾, 즉 먹고 싸는 육체에 매인 치욕적인 삶, 그리고 거기에서 단 한 순간도 풀려날 길이 없었던 ‘당신’의 삶을 진화한 인류라 자부했던 스파이더들이 절절하게 그리워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정되고 극복되어야 할 것이 적어도 인간의 몸 자체는 아니게 된다. 육체의 삶이 치욕스러운 것은 몸 자체가 비루해서가 아니라 몸에 각인된 이데올로기의 작동 때문이다. 이에 포스트휴머니즘에서는 말소되었던 신체성의 복원을 중요시하며³⁷⁾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굿바이』에서 기계 몸의 실패는 인간의 육체를 긍정적인 것으로 새롭게 현시한다. 그러나 사이보그는 여성을 임신이나 출산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존재이자, 여성/유색 인종/자연/노동자를 지배해온 이분법적 사고의 논의를 혼란시킨다는 것이 해러웨이가 주장하는 성의 정치학이라³⁸⁾ 할 때, 화성 실험의 실패가 단순히 ‘당신’의 육체가 매인 가정, 임신, 출산, 노동에 속박된 삶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³⁹⁾

35) 윤이형, 앞의 책, 68면.

36) 위의 글, 76면.

37) 캐서린 헤일스, 앞의 글, 28면.

38) 유제분, 『사이보그 인식론과 성의 정치학』, 『미국학논집』, 36권 3호, 2004, 155-156면.

39) 윤이형의 소설을 ‘포스트휴먼-되기’의 과정으로 보는 논의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참고, "The Posthuman and Transboundary Imagination in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Considering the Works of Pae Myŏnghun and Yun Ihyŏng", *Journal of Korean Studies* 23, no. 2,

이 시점에서 ‘그녀’의 결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스파이들이 이 리턴 시술을 받고 있는 와중에,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인간의 몸을 소각해줄 것을 요청한다. 같은 몸을 가진 스파이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결국 평등을 추구하는 진보한 공동체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동질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님을 말해준다. 오히려 차이를 인정하는 것, 이질성이 공존하는 것에서 진정한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 소설은 보여주고자 한다. 화성실험이 실패로 판명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향해 전진하는 과학자 ‘그녀’와 가난과 가족으로부터의 소외에도 불구하고 태증의 ‘나’를 위해 무모한 희망을 놓지 않은 채 홀로 출산을 감행하는 ‘당신’이야말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둘 사이에는 백 년이 넘는 시차가 작동하고, 끝끝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소설은 마지막 장면을 통해 작은 희망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나의 출생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다. 전지적 시점에서 모든 상황을 서술하던 ‘나’는 출생을 거부하고 탯줄을 목에 감는다. “앞으로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잘되지 않을 것이다. 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어차피 실패할 거라면.”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비동시성의 모순이 소외시킨 ‘당신’의 삶이 나를 낳으면서 더 힘들어질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세상 밖으로 꺼내지고, ‘그녀’가 출산을 돕기 위해 보호자로 참석했음을 알게 된다. ‘그녀-스파이디’가 탯줄을 자르는 순간, ‘나’는 모든 기억을 잃고 포근한 망자에 휩싸인다.

이렇게 ‘나’는 홀로 ‘나’를 낳으려는 당신을 위해 그런 삶을 이해할 수 없음에도 기꺼이 보호자가 되어주는 ‘그녀’, 역시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녀의 신념을 위해 인간의 몸을 소각시켜주는 ‘당신’ 사이에서 탄생한다. ‘나’는 상호 이질적인 존재인 ‘당신’과 ‘그녀’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과 기계

의 자손이다. 마주할 수 없고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과거와 미래의 존재 사이에서 아버 없이 탄생하는 나는 어떤 가부장적 전통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스파이디가 뱃줄을 잘라줌으로써 기계와 인간,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존재로서 탄생하는 '나는 과학기술을 통한 더 나은 인류에의 지칠 줄 모르는 신념과 인간에 대한 무모한 사랑의 경계에서 탄생한 포스트휴먼이다.

윤이형의 작품에서 공통되는 비동시성의 설정은 기술발전 시대의 새로운 계층적 불평등을 가시화한다. 휴먼과 포스트휴먼의 시대를 선후로 배열하지 않고 두 체제가 공존하는 시간관을 보여줌으로써 윤이형의 소설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해줄 거라는 맹목적인 믿음에 의문을 제기한 채 반복되는 역사의 리듬을 주시한다. 그러나 소설은 디스토피아를 제시하거나 단순히 기술 문명의 폐해를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스파이디'가 도와줄 거라는 암시는 더 나은 미래에의 희망적 비전이다. 그리고 '나의 탄생 장면이 보여주듯이, 비동시성의 모순이 가시화된 현재에 과거와 미래, 인간과 기계, 빈부의 격차가 변증법적으로 지양됨으로써 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해낸다. 이처럼 윤이형의 소설은 이분법적 차이가 지양되며 생성되는 혼종적 공동체를 통해 과거로부터의 모순이 극복된 긍정적 미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3. 여성 과학자의 유령적 귀환과 집합적 주체

김초엽의 소설을 읽었을 때 오래도록 남는 것은 여성 과학자 인물들이다. 학자로서의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이며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그녀들의 형상 말이다. 그런데 그들은 한편으로는 해소되지 않은 과거의 모순으로서 나타난 유령적 존재이기도 하다.⁴⁰⁾ 과학자로서 그들은 인간 신체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세계의 표

준적, 보편적인 시선에 맞서 온몸으로 부딪혀 대안을 찾아 나아간다. 그런 한편, 과거의 잔재로서 출몰한 그들은 결코 죽지 않을 환영으로 귀환함으로써 현재 보이는 모순의 이유를 집요하게 캐묻는다.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의 이야기는 가운이 우주인 후보로 선정되면서 시작된다. 화성 근처에서 다른 우주로 연결되는 터널이 발견되었고, 극단적인 터널의 환경을 통과해 너머의 우주로 갈 최초의 인류가 되기 위해 선정된 우주인들은 사이보그 그라인딩 프로젝트, 즉 사이보그로 개조되어야 한다. 신체 개조 과정이 시작되면서 가운은 최초의 터널 우주비행사로 선발되었던 재경 이모의 비밀을 알게 된다. 재경 이모가 속한 제1기 터널 우주비행사들은 발사 캡슐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가운은 다시 선발된 터널 우주비행사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운은 재경 이모가 우주로 가는 대신 발사 전날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된다. 그에 따라 사이보그 그라인딩 과정 중 틈틈이 가운은 재경의 딸이자 자신의 친구인 서희와 대화하며 재경 이모가 우주 대신 심해로 간 이유를 알아내고자 한다. 죽었다고 알려진 재경 이모는 해소되지 못한 과거의 모순을 안고 유령처럼 귀환하여 가운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최재경은 선발 발표 직후부터 세간의 논란에 휘말렸었다. 마흔여덟이라는 많은 나이, 만성 전정기관 이상, 표준 신체에 미달하는 마르고 작은 체형인데다 한 차례 임신과 출산을 겪은 동양인 여성이라는 사실⁴¹⁾이 선

40) 비동시성이 현재성의 어그러짐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테리다의 개념을 참고할 수 있다. (자크 테리다, 『마르크스의 유령들』, 진태원 옮김, 그린비, 2014, 197-198면 참고.) 테리다는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때, ‘마르크스라는 유령’을 소환한다. 그는 유령적인 공산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자본주의적 시장 질서의 모순 속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타자들의 고통이 울려퍼지는 한 해방운동의 대명사였던 마르크스(주의)가 필요하며, 존재론을 넘어서는 마르크스 정신, 즉 유령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진태원, 『옮긴이의 글』, 위의 책, 365-366면 참고.)

41) 김초엽,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허블, 2019, 279-280면.

발 과정에 대한 논란으로, 각종 주요 직위의 성별, 인종 할당제와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한 비난⁴²⁾으로 이어졌다. 이때 “인간을 넘어서고 싶”⁴³⁾다는 재경의 말은 일차적으로 인간 신체의 능력 향상을 기대하는 것이면서도 나아가 ‘동양/여성’이라는 몸에 간혀 이데올로기의 폭력에 노출된 상황에서 세간의 시선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말로 들린다. 사이보그 그라인딩은 우주의 극한 환경에 맞추어 생명체를 개조하는 프로젝트인데, 개조의 최종 단계는 금속 기계와 바이오 나노봇을 결합한 사이보그로, 개조가 완료되면 원래 인체의 비율은 5분의 1 미만에 불과하게 된다.⁴⁴⁾ 이렇게 재경은 이중적 의미에서의 인간 몸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사이보그가 되기로 결심했고, 사이보그가 됨으로써 자신의 이전 몸이 매인 교차적 위치로부터 탈주가 가능했던 것이다.

소설은 과학 기술이 훨씬 발달한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하지만 소수자를 향한 차별적 시선은 근대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과소대표되면서 동시에 과대대표”⁴⁵⁾될 수밖에 없었던 재경은 여전히 이분화된 시선을 통해 판단되며 표준/보편 인류가 될 수 없는 여성의 곤경을 잘 표현해낸다. 그러나 소설은 ‘올해의 여성’에 뽑히고 소녀들에게 용기와 응원을 주는 인터뷰를 남겼으며 비혼모 후원 홍보 모델로 활약했고 여성과학자들의 컨퍼런스마다 주요 연사로 초청되었던 재경의 활약이 수많은 소녀들의 꿈을 바꾸었을 것이라 말한다. 가운의 우주 영웅이 재경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가운은 재경 이모가 온갖 편견에 맞서 한 걸음 나아가 준 덕분에 조금은 더 편하게 최초의 터널 우주인이 될 수 있기도 했다.

재경은 사람들이 우주 영웅에게 기대하는 표준적인 시선을 이탈한 존

42) 위의 글, 280면.

43) 위의 글, 281면.

44) 위의 글, 282면.

45) 위의 글, 297면.

재단. 선발 기준에 대한 논란이 그러했고, 우주로 가는 대신 심해로 사라져 버린 것도 그러하다. 재경은 늘 객관적이거나 총체적인 지식에서 이탈하는 위치에 처했다. 그렇기에 재경의 위치는 취약성을 드러내준다.⁴⁶⁾ 심해 다이빙 훈련을 통해 기묘한 자유로움을 느낀 가운은 재경이 남겨놓은 심해 환경에 대한 계산식을 보며 이모의 선택을 지지하기로 한다. 우주에 가지 않는 게 이모에게는 진정한 해방이었을 것이라 짐작 가능했던 것이다. 한편 가운은 재경과 유사 가족 관계였기에 눈총을 받기도 했고 역시 동양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세간의 편견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재경과는 다른 위치로 이동한다. 재경이 심해로 가는 자유를 선택했다면 가운은 터널을 넘어 먼 우주로 간다.

별들과 뿌옇게 흩어진 성운이 보였다. 더 많은 별이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수도 없이 보았던 저쪽 우주와 별다를 바도 없었다.

재경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래, 굳이 거기까지 가서 볼 필요는 없대니까. 재경의 말이 맞았다. 솔직히 목숨을 걸고 올 만큼 대단한 광경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운은 이 우주에 와야만 했다. 이 우주를 보고 싶었다. 가운은 조망대에 서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까지 천천히 우주의 모습을 눈에 담았다.

언젠가 자신의 우주 영웅을 다시 만난다면, 그에게 우주 저편의 풍경이 꽤 멋졌다고 말해줄 것이다.⁴⁷⁾

인용된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최초로 터널을 넘어간 우주비행사의 위치성이 그려짐과 동시에 부분적 시력과 제한된 목소리만이 가능한 체험적 지식이 집합적 주체 위치를 통해 현상하는 순간이다. 여성도, 과학자도, 영웅도 단 하나의 모습일 수 없다. 같은 사이보그 그라인딩 과정을 거

46) 도나 해러웨이, 앞의 책, 350-351면 참고.

47) 김초엽, 위의 글, 319면.

쳤지만 결국 다른 공간을 찾아간, 그리하여 다른 체현적 지식을 갖게 된 두 명의 여성을 통해 김초엽은 세계에 대한 유일한 보편 지식에 저항하는 새로운 과학 서사를 써내고 있다. 그를 위해 최재경은 보편적 관점에서 취약한 자신의 위치성이 소멸할 때까지 죽지 않은 유령적 존재로서 우리의 주변을 배회한다. 그럼으로써 후대의 여성들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표준적/보편적이라 믿어지는 지식에 균열을 가하고 이동시키는 데 기여한다. 동시에 이 소설은 인류에게 여전히 미지의 공간인 심해⁴⁸⁾와 먼 우주를 최초로 탐사한 영웅들이 여성이었음을 기록해둔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이미 백 년 전에 폐쇄된 우주정거장에서 가족들이 살고 있는 슬랜포니아 행성계로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노인, 안나에 대한 이야기다. 우주정거장을 무단으로 점검한 괴팍한 노인은 사실 초기 우주 개척 시대에는 촉망받는 과학자였다. 워프 항법의 발명은 인류에게 우주 개척 시대를 열어주었다. 워프 항법이란 우주선이 빛의 속도에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이동하는 우주선을 둘러싼 공간을 왜곡하는 워크 버블을 만들어 빛보다 빠르게 다른 은하로 도달할 수 있게 된 기술이었다. 그로 인해 자원도 풍부하고 살기 좋은 슬랜포니아 행성에도 개척 이주가 이루어졌고, 안나의 남편과 이들도 이주 행렬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안나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우주여행을 위해 인체를 냉동시켜 잠든 상태로 도착하게 만드는 딥프리징 기술을 개발한 과학자였고, 기술 완성을 목전에 앞둔 상태에서 가족을 먼저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고차원 워홀 통로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우주 개척 시대의 2차 혁명이 이루어진다. 급작스럽게 일어난 기술 패러다임의 변동으로 한때 가까운 우주였던 슬랜포니아는 순식간에 먼 우주가 되어버렸고, 안나가 딥프리징 기술을 완성하여 발표했을 때에는 이미 항로는 폐쇄된 상황이었다.

48) “심해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매우 높은 장벽을 넘지 않으면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현실점에서는 심해 조사보다도 우주 개발에 나서는 국가가 많아 여전히 미지의 공간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크로노스케이프, 앞의 책, 168-169면 참고.)

여성 노인, 초라한 우주선, 폐쇄된 정거장의 이미지들은 효율적인 시간을 이탈한 위치성에 해당하며, 초기 우주 개척 시대의 유물로서 비동시성의 모순을 환기시킨다. 딥프리징 기술로 생명을 연장해온 170살의 안나는 ‘우주 망령’과도 같다. 시간의 이음매에서 어긋난 안나의 존재는 타자의 도착이며, 이는 해소되지 않은 과거의 모순의 현현이다. 한때 우주 개척 시대의 신기술을 개발하는 젊은 과학자로서 “학자로서의 호기심”과 “인류의 미래에 기여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가족과 떨어진 채 연구에 매진했던 안나는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기술의 전환과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상의 논리로 말미암아 우주정거장을 무단 점검하고 오직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괴팍하고 초라한 노인으로 남게 된 것이다. 우주 연방이 훨씬 ‘빠르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워홀 항법을 채택했고, 가족과 생이별을 한 채 지구에 남겨진 사람들의 사정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우주를 개척하고 인류의 외연을 확장하더라도, 그곳에 매번, 그렇게 남겨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중략) 우리는 점점 더 우주에 존재하는 외로움의 총합을 늘려갈 뿐인 게 아닌가.”⁴⁹⁾

아직 빛의 속도에도 도달하지 못했는데, 마치 우주를 정복한 것처럼 구는 인류를 향해 냉소하는 안나의 말은 무게를 갖는다. 슬랜포니아로 출발할지도 모르는 우주선을 기다리느라 사용했던 딥프리징 기술도 완벽한 게 아니었음을 깨닫고, 궁극적으로 완벽한 기술도 발전의 완성도 없음을 시행착오를 겪으며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안나는 자신의 체현적 지식에 기대어 발전된 과학적 지식도 실은 완벽하지 않고, 단일한 우주 연방의 목소리가 옳은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이때 취약성 그 자체를 현시하는 그녀의 위치성은 해소되지 않은 과거 모순의 현현인 한편 문제 해결의 기

49) 김초엽,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앞의 책, 181-182면.

회이기도 하다.⁵⁰⁾ 가족과 떨어져 기다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도 합리적인 논리로 포장된 권력에 대한 투쟁이며, 평생의 시행착오를 거쳐 형성된 체현적 지식은 부분적이지만 객관적 지식임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소설의 마지막에 안나는 워프 버블조차 만들 수 없는 낡은 개인 우주선을 타고 가족들을 향해 출발한다. 슬랜포니아 행성계는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수만 년은 걸리는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시대를 장악한 단일한 지식에 맞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호하게 길을 떠나는 안나는 무모해도 희망을 찾아 돌진하는 진정한 영웅 같다. 그렇기에서만 우주로 출발한 안나가 설혹 어느 시공에서 사라져버린다 해도 그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안나의 유령적 귀환은 현재 해소되지 못한 모순의 현현이자 워홀 항법만이 단일하게 운용되는 효율성의 시대에 맞서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위치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김초엽의 소설은 여성 과학자들의 위치성과 체현적 지식을 통해 객관을 가장한 보편-단일의 과학 담론의 허상을 고발하고 세상의 편견에 저항한다. 이때 여성 인물들은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유색인 여성 혹은 노인이라는 교차적 정체성을 갖는다. 이들은 과학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는 지식인인 한편 취약성을 담보한 인물들이기도 하다. 이때 과학자인 여성 인물들은 마치 영웅처럼 과학 기술을 통해 세계의 불가능성을 돌파해나간다. 그와 동시에 취약한 위치성에 기반한 유령적 존재로 귀환하여 해소되지 않은 모순을 드러낸다. 이렇게 김초엽의 SF는 근대적 휴머니즘의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해 그것이 각인된 몸의 한계를 기술적으로 넘어서고, 시공간을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위치성에 기반한 체현적 지식들의 함으로 이

50) '시간이 이음매에서 어긋나 있다'는 햄릿의 말은 시간의 질서 안에, 현존으로서 존재의 질서 안에 근원적인 탈구와 이접, 간극이 존재함을 뜻하는데, 이러한 유령의 귀환은 데리다에 의하면 메시아적인 장래가 도래하기 위한 조건이자 정의가 실행되기 위한 기회로 설명된다.(자크 데리다, 앞의 글, 370면 참고)

루어진 집합 주체를 설정한다. 이는 세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시도하고 윤리적인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간여행자의 광속주행 플롯과 공동존재의 발견

김보영의 『미래로 가는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에 관한 소설이다. 마침내 빛의 속도로 갈 수 있게 된 미래의 인류가 먼 우주 곳곳을 여행하는 소설적 설정은 시공간의 제약을 불허하는 SF의 강점이다. 이 소설에서는 서사의 전진 진행의 욕망과 SF 시공간의 특수성이 만나 시간여행자가 광속 우주선을 타고 우주의 끝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 피터 브룩스는 플롯이 시간성의 문제와 상관이 있다고 본다. 인간의 시간 지향성, 즉 유한한 삶의 경계 안에 살고 있다는 존재 의식이 플롯의 동력이 된다는 것이다.⁵¹⁾ 근대라는 텍스트에서 삶의 열역학 기관이 증기기관이라면, 김보영의 SF에서 동력기관은 광속에의 욕망을 가진 광속 우주선이다. 이제 소설은 지구에 묶인 시간을 벗어나 우주에서 광속으로 이동한다. 그러니 『미래로 가는 사람들』의 서사는 내러티브를 모양 짓는 시간적 역학의 차원에서 ‘광속주행 플롯’이라 이름 붙여도 좋을 것이다.⁵²⁾ 광속 우주선의 추진체는 에키온인데, 차원을 업그레이드하는 에키온의 항법은 더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시간이 공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를 확실히 알려준다.⁵³⁾ 그러나 빠르게 달릴수록 최종목적지는 가까워지는데 그것은

51) 피터 브룩스, 『플롯 찾아 읽기: 내러티브의 설계와 의도』, 박혜란 옮김, 강, 2011, 11면 참고.

52) 피터 브룩스는 발자크 소설이 근대의 속도의 상징인 증기기관차 같은 동력학에 의한 것이며, 스탕달 이후의 작가들이 산업혁명 발생기의 엔진과 동력기들을 작품의 중심 주제와 상징적 힘으로 포착했다는 차원에서 근대소설에서 증기기관으로서의 플롯을 발견한다.(위의 글, 80-83면 참고.)

53) 에키온은 질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우주선을 3차원에서 4차원(아인슈타인은 4차원을 시간이 라고 말했지만,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였다.)으로 ‘띄워’ 올린다. 지구라는 2차원 세

내용적 차원에서 우주의 끝, 혹은 인간의 죽음을 의미하는 한편 서사의 입장에서는 이야기의 끝, 종결을 의미하는 역설에 처하게 된다. 또한 광속에 가깝게 달리면 공간이 왜곡되므로 여행은 결국 원을 그리며 출발지로 회귀하게 된다.⁵⁴⁾ 그러므로 증기기관차의 속도에서 시작된 이래 최대의 속도를 욕망하며 달려온 시간 소설은 광속에 도달하면서 오히려 발전적이고 선형적인 근대적인 시간관이 불가능한 지점을 가시화하고, 시간을 건너뛰고 왜곡하는 서사의 흐름은 영원과 유한의 사이에 놓인 인간 존재의 의미를 중재하는 플롯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네 개의 장이 순서대로 연결된 이 소설은 전통적 서사문법을 따르는 듯하지만 비트는 전략을 취한다. 각 장에는 ‘기-승-전-합’이라는 제목이 달려있는데, 재래의 한시를 구성하는 원리로서의 ‘기승전결’에 차이를 둔 전개에 해당한다. 장 제목만을 모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야기: 起 - 우주의 끝을 찾아내는 법

기(起): 내닫다, 날아오르다, 가다.

두 번째 이야기(혹은 첫 번째 이야기): 承 - 하늘에서 내려온 이들이
해야 할 일

승(承): 받들다, 공경하여 높이 모시다, 계승하다.

세 번째 이야기: 轉 - 광속도에서 일어나는 일

계에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위’라는 세 번째 차원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비행기가 날고 있는 공간과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 공간은 2차원적으로 보았을 때, 같은 공간이되 같은 공간이 아니며, 인접해 있으면서 서로 겹치지 않는다. 광속 우주선이 수소원자 따위에 부딪쳐 파괴되지 않는 이유도 그러하다. 수소 원자가 ‘아래’, 즉 한 차원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광속 우주선에서 보는 영상은 우주이되 우주가 아니다. 땅 위에서 달릴 때 보이는 영상과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 보이는 영상이 다르듯이.(김보영, 『미래로 가는 사람들』, 『멀리 가는 이야기』, 행복한책읽기, 2010, 402-403면.)

54)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간주해 ‘시공(space-time)’이라고 한다.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과 공간은 하나가 되어 신축되거나 휘어진다.(폴 데이비스, 『시간이 흐른다는 감각은 환상이다』, 『Newton-시간이란 무엇인가?』, 뉴턴, 2019, 120면.)

전(轉): 옮기다, 바꾸다, 움직이다, 변화하다.

네 번째 이야기: 숨 - 네 번째의 축으로 가는 법

합(合): 만나다, 여럿이 모여 하나가 되다, 합하다.

우주선의 비행과 더불어 서사는 시작되고(起), 시간여행자가 인류의 과거/미래에 영향을 미치고(承), 광속도에 도달한 사람들을 목격한다(轉). 이때 주인공이 그들과 함께 광속에 도달하지 않고 빠져나와야 하는 이유는 광속에 도달하는 순간 시간이 멈추므로 다시는 감속할 수 없고 우주의 소멸과 더불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즉 인간에게는 한순간의 죽음이 찾아온 것과 같으므로 서사를 지속할 의무가 있는 주인공은 광속에 도달하는 대신 목격하여 이야기를 전달하고 여행을 계속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서사문법과 달리 『미래로 가는 사람들』은 이야기의 결론을 맺지 않는다. 주체의 단일한 입장으로 귀결하는 근대의 시각 대신 다수의 입장을 포괄하는데, 이는 서사가 익숙한 3차원의 시공간에서 끝나는 대신 4차원이라는 새로운 시공간을 열어젖혀 합(合)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기에 가능해진다.

1장(起)은 지구가 아닌 우주에 묶인 사람들을 소개하며 시작된다. 우주의 끝까지 가기 위해 항법사를 찾아가는 시간여행자 성하⁵⁵⁾가 등장한다. 모계 유전자 복제를 통해 만들어진 항법사 셀레네는 책을 통해 지식을 전수받고, 시간여행자는 광속에 가까운 여행을 통해 문명의 죽음을 여러 차례 목격함으로써 앞을 축적한다.

“같은 역사가 두 개의 별에서 이중으로 진행되었어요. 마치 평행우주를 하나 만들어 낸 것처럼. 도시가 만들어졌고, 멸망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원시시대에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갔을 땐 그곳도 인간이 살 만한 행성이 아니었어요.”

55) 이때 '성하(星河)'라는 이름은 지구 대신 우주에 묶인 시간여행자라는 정체성에 걸맞다.

“인간은 어딜 가든 마찬가지야.”

예상한 일이라는 듯 켈레네가 중얼거렸다.⁵⁶⁾

이들의 인간관은 냉소적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근대 휴머니즘적 원리에 의해 수없이 발생과 멸망을 거듭한 문명들과 버려진 우주선과 인공위성들, 행성의 시체가 떠다니는 무덤 속 같은 죽은 우주는 이 소설이 뿜어내는 어두운 분위기의 배경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하와 같은 몇 안 남은 시간여행자들은 광속에 도달할 때까지 달리려는 의지의 소유자들이다. 이 죽은 우주와 광속주행의 두 극단적 요소는 3장(轉)에 와서 변화의 국면을 맞이할 때까지 서사의 긴장을 팽팽하게 유지하는 구조로서 기능한다.

성하는 2장(承)에서 광속우주선의 추진체인 ‘에키온’의 연료를 구하기 위해 지구에 착륙하며 문명 이전의 인류를 만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을 거스른 현상이 아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가 길어도 2만 년이라 산정할 때 50억 년이 넘는 시간을 여행하는 시간여행자는 지구에 들 때마다 문명의 멸망과 새로운 문명의 시작을 여러 차례 목격할 뿐이다. 그러다 보니 더 발전된 문명 다음에 덜 발전된 문명이 오기도 하고, 그렇기에 “위대한 과거인” 또한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광속주행 플롯은 익숙한 발전적, 혹은 진화론적 시간관과 결별한다. 지구에 착륙한 성하는 원시 인류에게 기계장치를 이용해 신으로 군림하는 한 문명인을 만난다. 현시대 인류와 흡사한 그는 권력형 인간으로 그려진다. 그와 달리 권력욕도 지구에도 미련이 없는 성하는 바로 비행을 재개하려 하지만, 그는 성하를 붙잡고자 위협하고 성하는 그를 고차원적 장치로 제압한 후 우주로 떠난다. 이처럼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우주의 끝으로 가려는 성하의 의지는 근대적 휴머니즘과 결별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2장은 이 소설의 세계관

56) 김보영, 앞의 글, 390면.

을 암시한다.

‘빨리 달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에키온은 일종의 생명체다. 에키온의 식량은 오직 지구에서 자라는 빨간 꽃에서만 구할 수 있다는 점, 엄청난 속도광이라는 점, 시간여행자와 에키온이 만났을 때에만 오직 광속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소설의 광속주행은 인간과 에키온의 합작품이다. 혹은 광속의 전진 진행을 욕망하는 플롯의 서사는 인간의 욕망을 닮았고 또한 에키온의 욕망과도 같다.

수많은 에키온들이 발하는 빛이 형광등 불빛처럼 환하게 새어나왔다. 벽에는 거대한 투명구가 붙어 있었고, 그 안에서 반딧불이 같은 에키온들이 제멋대로 부유하고 있었다. 에키온은 이곳에서부터 출발하여 우주선의 벽과 벽의 틈으로 헤엄치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 쉽게 말하면 이곳은 심장이었고 우주선의 벽은 혈관이였다. 피가 산소를 공급한다면 그들은 속도를 공급한다. 우주 공간에서는 구할 수 없는, 정확히 말하면 지구라는 별에서밖에 구할 수 없는 유기화학 영양분을 받기 위해 그들이 기꺼이 우주선이라는 ‘생물’과 공생하는 길을 택했다. 우주선은 그들에게는 몸이고, 인간은 영양공급자이며, 세포의 한 종류인 셈이다.⁵⁷⁾

에키온과 인간이 세포의 종류이며, 우주선은 심장을 가진 ‘생물’로 빚든 소설의 구절은 의미심장하다. “혼성적인 요소들의 집합, 질료적·정보적 존재, 사이버네틱스 메커니즘과 생물학적 유기체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포스트휴먼 주체를 환기한다.⁵⁸⁾ 인류의 문명이 매우 발달한 시대에 태어난 성하는 나노 기술을 받았다. 혈관 속을 돌아다니며 빛과 물만 있으면 자체 에너지를 생성하는 초록빛 나노 기계를 가진 성하는 기계와 인간이 혼종된 사이보그다. 한편 에키온은 속도(발전)를 향한 인간의 욕망이 물

57) 위의 글, 450면.

58) 캐서린 헤일스, 앞의 책, 24면 참고.

화된 생명체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점점 더 속도를 높여가는 광속 주행 플롯의 주체는 '에키온-성하'가 세포처럼 기능하는 광속 우주선이자 포스트휴먼 그 자체의 현현이다.

3장(轉)에서 우주의 끝에 도달한 성하는 다른 시간여행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우주가 아니라 광속에 매료된 자들, 에키온 병에 걸린 사람들로 설명된다. “오랫동안 광속여행을 한 사람이 걸리는 병입니다. 에키온의 의지가 사람의 두뇌에 침입해서, 속도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광속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건 당신이 아니라 이 우주선이에요.”⁵⁹⁾라 설명되는 에키온 병은 증기기관의 발명 이래 기술 발달에 힘입어 점차 가속에 가속을 거듭하며 광속에 근접한 근대의 속도주의에 대한 비유이며, 기술 문명 발전의 끝은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성하가 우주의 끝에서 만난 시간여행자들이 마지막 선택을 하는 순간 인간 욕망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광속주행 플롯은 막을 내린다. 광속에 도달하는 순간 시간이 멈추므로 다시는 시간을 늦출 수 없다(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성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우주선은 광속에 도달하고, 그 순간 그것은 성하의 눈앞에서 사라진다.⁶⁰⁾

광속주행은 끝나고 홀로 남은 성하는 마지막 4장(合)에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는 상태로 눈을 뜬다. 그리고 우주의 종말과 더불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깨닫는 순간 어떤 파장과 같은 것이 자신의 내부로 스미는 것을 느낀다. 아득한 세월 동안 생명체도 빛도 없는 죽은 우주를 유영해온 그것은 뇌의 언어중추를 직접 자극해 말을 걸어왔고 성하의 몸속을 휘젓고 다니다 몸 밖으로 빠져나온다. 수많은 영혼들의 집합이자

59) 김보영, 앞의 글, 461면.

60) 광속에 도달한 사람들은 먼저 죽은 영혼들과 조우한다. 이는 그들이 죽음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설은 인간이 4차원의 영상, 즉 영혼들에 해당하는 빛무리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만큼 빠른 속도로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부연 설명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단일한 생명체이기도 한 그것은 ‘클러스터(cluster)⁶¹⁾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성하가 우주의 끝까지 달려오며 찾고자 했지만 끝내 찾지 못한 4차원의 향로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한다. 4차원의 이동은 위, 아래, 좌우, 앞뒤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그 네 번째 공간좌표로의 이동은 내부에서 외부로 가는 것, 혹은 외부에서 내부로 오는 것과 같다. 그것은 “성하는 자신이 클러스터의 영혼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고, 클러스터의 안에 살아 있는 수많은 영혼이 폭포처럼 성하의 의식을 파고드는 것”으로 설명된다.

마침내 성하는 자신이 성하인지, 클러스터인지, 아니면 둘을 합친 다른 존재인지 알 수가 없게 되어 버렸다. (...) 성하는, 아니 ‘클러스터’에 키운-성하는 은하계 전체로, 성단 전체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성하는 죽어 있는 우주에 남아 있는 몇 조각의 영혼을 발견했고, 다시 그들과 하나가 되었고, 그들의 모든 기억과 하나가 되었다.⁶²⁾

성하는 클러스터 내부에 속하면서 클러스터 자체이기도 하다. 이는 개별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공동존재에 해당한다. 이 공동존재인 ‘성하-클러스터’는 하나의 차원이자, 하나의 전체이고, 모든 것을 아는 존재이다. 죽음에 임박한 성하를 위해 일부를 잃으면서까지 도와주려는 클러스터는 숨결의 나눔을 이룬 ‘밝힐 수 없는 공동체’의 현현처럼 보인다. 나의 존재로도 타자의 존재로도 환원될 수 없는 공동의 영역을 알리는 ‘우리’의 존재인 ‘외존(관계 내의 존재)’이 SF의 시공에서 구현되는 순간이다.⁶³⁾ 클러스터를 만나고 클러스터와 하나가 되면서 성하의 질문은 마침

61) (컴퓨터) 클러스터는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처럼 동작하는 컴퓨터들의 집합을 말한다. 클러스터의 구성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고속의 근거리 통신망으로 연결된다.(위키백과, 2020.6.6. 참고)

62) 김보영, 위의 글, 488면.

63) 모리스 블랑쇼/장-뤽 낭시, 『밝힐 수 없는 공동체/마주한 공동체』, 박준상 옮김, 문학과지성

내 답을 얻는다. 이때 “성하는 클러스터가 여성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⁶⁴⁾는 문장은 중요해 보이는데, 결국 광속주행 끝에 알게 된 인간의 기원 혹은 우주의 원리는 전지전능한 아버지-유일신이 아닌 여성적 집합 주체이기 때문이다. 최후이자 최초의 생명 에너지, 지구를 넘어 우주의 끝과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여성(성)에 대한 강한 긍정의 메시지를 각인한다. 죽은 우주 바깥에서 새로운 우주가 태어나고, 하나이면서도 수많은 영혼이 우주에서 수많은 행성으로 쏟아지는 장관을 선사하는 소설의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을 통해 ‘공동존재(클러스터)’는 기억된다. 그리고 그 대안적이고도 윤리적인 공동체로부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이 소설은 여성주의적 창세기에 해당한다.

인간이란 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변화의 맥락 속에 다시 쓰이는 유연한 개념이며, 기술(과학)과 담론(문학)의 결합이 새로운 주체화에 대한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헤일스의 시각⁶⁵⁾을 환기해보자. 광속 우주선의 추진체인 ‘에키온’을 생물로, 인간과 에키온을 세포로 갖는 광속 우주선을 생명체로, 하나이자 무수히 많은 영혼들의 집합체를 ‘클러스터’라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설명하는 소설의 방식은 과학과 문학이 결합하여 이루어낸 새로운 사유의 도전이다. 엄청난 기술 발전으로 인해 광속에 가까운 주행이 가능했고, 그렇기에 우주의 끝에 도달하고, 클러스터를 만나고, 4차원의 경험의 가능하다는 소설의 설정은 “글쓰기는 저자의 신체를 외부 세계로 확장시키는 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헤일즈가 말하는 ‘텍스트적 사이보그’에 해당한다.⁶⁶⁾ 김보영의 소설은 이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선함으로써 여성적 공동존재를 발견해내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까지도 제안한다.

사, 2013, 95-98면 참고.

64) 위의 글, 474면.

65) 캐서린 헤일스, 앞의 글, 59면 참고.

66) 위의 글, 231면 참고.

5. 맺는말

킵 손 박사의 워홀을 이용한 시간 여행 아이디어는 소설 『콘택트』(1985)에서 비롯되었다. 천문학자이자 SF 작가인 칼 세이건이 가깝게 지내던 킵 손 박사⁶⁷⁾에게 지구에서 항성 베가로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상의했고, 그 일을 계기로 킵 손 박사가 워홀을 이용한 이동을 제안하게 되었기 때문이다.⁶⁸⁾ 문학의 상상력이 과학의 지식을 확장시킨 이 사례는 현재 한국 여성 SF가 모색하는 희망적 미래의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윤이형의 작품에서 설정된 비동시성의 모순은 기술발전 시대의 새로운 계층적 불평등을 가시화한다. 휴먼과 포스트휴먼의 시대를 선후로 배열하지 않고 두 체제가 공존하는 시간관을 보여줌으로써 윤이형의 소설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해줄 거라는 맹목적인 믿음에 의문을 제기한 채 반복되는 역사의 리듬을 주시한다. 그러나 소설은 디스토피아를 제시하거나 단순히 기술 문명의 폐해를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비동시성의 모순이 가시화된 현재에 과거와 미래, 인간과 기계, 빈부의 차이가 변증법적으로 지양됨으로써 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윤이형의 소설은 이분법적 차이가 지양되며 섞이는 혼종적 공동체를 통해 도래할 미래가 희망적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김초엽의 소설은 여성 과학자들의 위치성과 체현적 지식을 통해 객관을 가장한 보편·단일의 과학 담론의 허상을 고발하고 세상의 편견에 저항한다. 이때 여성 인물들은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유색인 여성 혹은 노인이라는 교차적 정체성을 갖는다. 이들은 마치 영웅처럼 과학 기술을 통해 세계의 불가능성을 돌파해나감과 동시에 취약한 위치성에 기반한 유령적 존재로 귀환하여 해소되지 않는 모순을 드러낸다. 이렇게 김초엽의 SF는 근대적 휴머니즘의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해 그것이 각인된 몸의 한계를

67)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이론물리학 파인먼 명예 교수. 2017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68) 『시간 여행의 과학』, 『Newton-시간이란 무엇인가?』, 뉴턴, 2019, 146면.

기술적으로 넘어서고, 시공간을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위치성에 기반한 체현적 지식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집합 주체를 설정한다. 이는 세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시도하고 윤리적인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

김보영은 ‘광속주행 플롯’을 통해 지구에 묶인 시간을 벗어나 우주에서 광속도로 이동한다. 광속주행 끝에 알게 된 인간의 기원 혹은 우주의 원리는 전지전능한 아버지-유일신이 아닌 여성적 공동체로 이는 개별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공동존재에 해당한다. 김보영은 최후이자 최초의 생명 에너지, 지구를 넘어 우주의 끝과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여성(성)에 대한 강한 긍정의 메시지를 각인한다. 또한 광속에 가까운 주행이 가능하고, 그렇기에 우주의 종말에 도달하고, 마침내 ‘클러스터(공동존재)’를 만나고, 4차원의 신적 경험이 가능하다는 소설의 설정은 과학과 문학이 결합하여 이루어낸 새로운 사유의 도전이다. 이렇게 ‘텍스트적 사이보그’에 해당하는 김보영의 소설은 포스트휴먼과 문학적 신체가 모두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비동시성의 병렬 구조, 해소되지 않은 모순의 유령적 귀환, 광속에 가까운 우주비행에의 욕망은 SF의 시공간이 가능하게 하는 인식론적 충격으로서 ‘지금-여기’의 문제를 확실히 지각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들의 작품이 새롭게 논의되어야 하는 까닭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비동시성의 모순에 맞서 윤이형은 모순의 간극을 변증법적으로 지양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과학자이자 유색인 여성 혹은 노인의 교차적 위치성에 기반한 김초엽의 서사는 보편-단일한 지식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체현적 지식에서 윤리적인 대안을 찾는다. 김보영의 서사는 근대적 시간관과 인간중심주의를 광속주행과 차원 이동을 통해 극복해내며, 여성적 공동체를 대안으로 발견한다. 시공간을 통한 사고실험의 방식은 작가마다 확실히 다르지만, 이들의 SF는 보다 나은 미래에의 희망을 암시하고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값지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김보영, 『멀리 가는 이야기』, 행복한책읽기, 2010.
김초엽,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허블, 2019.
윤이형, 『러브 레플리카』, 문학동네, 2016.

2. 단행본

- 박상준 외, 『한국 창작 SF의 거의 모든 것』, 케포이박스, 2016.
복도훈, 『SF는 공상하지 않는다』, 은행나무, 2019.
신상규, 『호모사피엔스의 미래: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 아카넷, 2014.
이화인문과학원 편,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이화여대출판부, 2013.
크로노스케이프, 『SF 사전』, 김훈 옮김, 비즈앤비즈, 2012.
도나 해러웨이,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민경숙 옮김, 동문선, 2002.
게오르크 루카치, 『소설의 이론』, 김경식 옮김, 문예출판사, 2007.
자크 데리다, 『마르크스의 유령들』, 진태원 옮김, 그린비, 2014.
캐서린 헤일스,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허진 옮김, 열린책들, 2013.
모리스 블랑쇼/장뤽 낭시, 『밝힐 수 없는 공동체/마주한 공동체』, 박준상 옮김, 문학
과지성사, 2013.
피터 브룩스, 『플롯 찾아 읽기: 내러티브의 설계와 의도』, 박혜란 옮김, 강, 2011.

3. 논문

- 강동호, 『포스트-휴먼-노블』, 문학과지성사, 『문학과사회』 31-4, 2018, 192-204면.
김미현,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여성과 테크노페미니즘』,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
연구』, 49, 2020, 10-35면.
김윤정, 『LGBT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바디의 상상력과 수행성』, 『이화어문논집』, 48,
2019, 73-100면.
노대원, 『한국 문학의 포스트휴먼적 상상력』, 국제비교한국학회, 『비교한국학』, 23-2,
2015, 333-360면.
노대원, 『포스트휴머니즘 비평과 SF』, 한국비평문학회, 『비평문학』, 68, 2018, 110-133
면.
문강형준, 『미래의 주체들』, 문학동네, 『문학동네』, 19-2, 2012, 1-15면.
박인성, 『한국 SF 문학의 시공간 및 초공간 활용 양상 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현

- 대소설연구』, 77, 2020, 245-277면.
- 백지은, 『신을 창조한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크릿터』 창간호, 민음사, 2019, 106-117면.
- 서승희, 『포스트휴먼 시대의 여성, 과학, 서사』, 현대문학이론학회, 『현대문학이론연구』, 77, 2019, 130-153면.
- 유제분, 『사이보그 인식론과 성의 정치학』, 한국아메리카학회, 『미국학논집』, 36-3, 2004, 152-171면.
- 인아영, 『젠더로 SF하기』, 자음과모음, 『자음과모음』, 42, 2019, 46-58면.
- 차미령, 『고양이, 사이보그, 그리고 눈물-2010년대 여성 소설과 포스트휴먼 ‘몸’의 징후들』, 문학동네, 『문학동네』, 26-3, 2019, 1-27면.
- 폴 데이비스, 『‘시간이 흐른다’는 감각은 환상이다』, 『Newton-시간이란 무엇인가?』, 뉴턴, 2019.
- Ernst Bloch, “Nonsynchronism and the Obligation to Its Dialectics”, translated in English by Mark Litter, *New German Critique*, No.11(spring), New German Critique, 1977, pp.22-38.
- Namkyung Yeon, "The Posthuman and Transboundary Imagination in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Considering the Works of Pae Myŏnghun and Yun Ihyŏng", *Journal of Korean Studies* 23-2, 2018, pp.325-345.

<Abstract>

Time and Space of Female Science Fiction and Posthumanism Perspective —Focusing on Yihyung Yun, Choyup Kim, Boyung Kim

Yeon, Nam-Kyung

The science fictions of Korean female writers in the 2010s are valuable for attention. These are because the science fiction genre is dispelling the preconceived notion of masculine, and are writing new science fictions that had a small position in the Korean literary field. In this paper, the post-gender and feminist perspectives embedded in the critical post-human discourse were introduced as a framework of interpretation, looking for the possibility of a hopeful future sought by Korean women's science fiction, by paying attention to the experiment of thinking about time and space.

Yun, Yihyung's fiction presents a view of time in which the two systems, human and posthuman, coexist, raising questions about the blind belief that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will guarantee a better life. But it is different from dystopia. Yun proposes the possibility that the contradiction of the nonsynchronousness of the past and the future will be avoided dialectically at the point of the present narrative.

In Kim, Cho-yup's fiction, female scientists, like heroes, break through the impossibility of the world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At the same time, they convey embodied knowledge as ghostly beings returning from their weak position. In this way, Kim's SF seeks a better world by

attempting a rational explanation of the world by setting the position of the collective subject and revisioning the world.

Kim, Boyung's fiction travels at the speed of light in space out of time bound to the Earth through a 'light-speed traveling plot'. The origin of human beings or the principle of the universe learned after traveling at light speed is not an omnipotent one and feminine collective subject, which corresponds to a possible co-existence without losing individuality. In this way, Kim's novel, which is a 'textual cyborg', implies that both posthuman and literary bodies are changing.

key words: Female SF, Posthumanism, Yihyung Yun, Choyup Kim, Boyung Kim, nonsynchronism, collective subject, light-speed traveling plot

투 고 일 : 2020년 8월 19일

심 사 일 : 2020년 8월 21일-9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0년 9월 12일

수정마감일 : 2020년 9월 26일